

연중 제21주일

제 1 독서 : 여호24,1-2a, 15-17, 18b

제 2 독서 : 에페 5, 21-32

복 음 : 요한 6, 60-69

순정이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요한 6, 68).

강론

“이렇게 알아듣기가 어려워서야!”

서 석 구 신부 / 화산동 천주교회

우리 교회는 성체성사의 신비를 가르치기 위하여 요한 복음 6장의 말씀을 4주간에 걸쳐서 계속 주일 복음으로 들려주고 있다. 그 내용이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과 목상을 통해서 깨닫도록 함에 있다고 본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요한 6, 51).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간에는 서로 웅성거리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식인종이란 말인가?” 하며 예수의 말에 심한 반발을 나타낸다. 그래서 당시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이 말씀에 회의를 품고 “너무 어려운 가르침이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며 예수 곁을 떠났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의 하나이다. 인간들은 예수님 당시 예나 지금이나 모든 기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고집하고 있다. 인간은 본래 유한한 존재임과 동시에 그 생각, 능력, 지혜 모든 것이 유한한 존재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신비스러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자기가 유한한 존재임을 망각하고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는 습성이 있다.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것이 솔직하고 겸손한 표현이 아닐지. 바로 오늘 예수님도 당신의 말씀에 수긍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고 답답한 심정으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사실 성체성사에 대한 교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많은 신비의 교리가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 당시 그의 곁을 떠났던 사람들처럼 오늘도 우리 곁을 떠난 사람이 없다 할 수 없다. 그럼 영세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서 말씀에서 그 소리를 듣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주님,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하고 대답했다. 우리들도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생명의 빵이라 하셨으니 당신은 참생명의 빵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소리

“상탁 하부정”(上濁下不淨)

지난 4월과 6월에 있던 두 차례의 지방의원선거에서 후보 1인당 적게는 수천만에서 15억원까지의 돈이 쓰여졌다는 후문이다.

13대 총선에서 서울 어느 선거구의 당선자가 1백억원을 뿌렸었다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진 바 있다.

흔히 사회의 구성분야를 말할 때 정치가 맨 앞에 거론되고 다음으로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가 운위된다.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흐리듯 정치가 부패하면 경제도 사회도 함께 부패하게 마련이다.

선거에 것처럼 많은 돈을 뿌리고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세비로 받는 돈은 월 3백 몇 십만원인데 이래저래 쓰는 돈은 1천만원이 넘는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들도 선거구민의 애경사에 ‘성의’를 표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고 비명들이다.

이런 사정으로 ‘검은 돈’이 없이는 정치판이 유지되지 못하고 그래서 ‘보스’들은 닭(큰 돈)을 잡아 ‘오리발’(적은 돈)을 뿌리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닭을 잡기도 힘들고 오리발도 제대로 얻어 쓰지 못하던 야당의 어떤 국회의원은 불어나기만 하는 빛을 감당치 못해 금뱃지를 떼어 던져버리고 정치폐업을 선언했다.

정치가 깨끗해지지 않는 한 정치인이 부패하지 않을 수 없을터이고 나라 살림도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며 국민생활에 나쁜 영향이 파급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판이 언제쯤이나 이뤄질 것인가. 머지 않아 닥칠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괜한 걱정을 해본다. **신**



“미소 짓는 계곡물과 나무들”

언제나 여름이 오면 하계 코이노니아 건으로 모든 교사들은 물론이거니와 본당 웃어른들까지도 바빠지게 된다. 하계 코이노니아 주제는 교사들이 하계 교리 연수교육을 받은 후에 그 주제에 맞게 프로그램이 결정된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교리교사 연수회에 참석했다. 주제에 따른 슬라이드와 강의를 통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당장에 삼푸, 린스, 치약 등을 빼앗김당하는 아픔이 느껴졌다. 식사 때마다 강제로 밥을 몰아 넣는 작업도 해야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 모든 주위의 환경까지도 포함되어져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너무도 쉽게 무관심하게 행한 우리의 행동 때문에 산과 바다는 시꺼멓게 썩어가고 파괴되어가고 있음을 알았다. 결국 그러한 무자비한 소치가 우리들을 파괴시키고 있음도 알았다.

주제가 상당히 힘들었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과감히 일정을 세우기 시작했다. 교육 프로그램의 특수성 때문에 장소를 몇 번이나 옮겨야 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본당은 연수교육이 끝나고 나서야 일정, 장소, 프로그램 등이 결정되었다.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며 교육 프로그램, 장비문제, 학생들의 식단표까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 드디어 3박4일 부안 중계로 결정되었고 기간은 7월23일부터 7월27일까지였다. 학생들의 보충수업으로 참석률이 저조한 탓에 발을 동동 구르며 한 명이라도 더 코이노니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했었다. 가끔씩 교사들의 의견이 맞지 않아 심한 언질까지 벌였지만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쉽게 화해하기도 했다.

코이노니아를 떠날 때에 학생들은 삼푸, 린스, 풍풍, 라면류, 1회용 용기, 음료수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하며 떠났다. 수녀님께서 손수 만들어주신 무공해 비누를 고맙게도 사용할 수가 있었다. 짧은 지식이나마 하나님과 우리와 자연의 관계를 설명 해가며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하여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식품첨가물 등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간단한 실험이지만 그 실험 결과에 좀더 깊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리고 한 예로 양치질할 때 치약 대신 소금을 쓰게 하였는데 워낙 생활 깊숙히 침투되었던 탓인지 양치질을 할 때마다 모두들 곤욕을 치렀다. 소금의 짠맛에 양치질을 포기할 때도 있었다.

코이노니아 일정 도중 장마비를 만나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중계국민학교로 피난을 가기도 했다. 덕분에 물건들이 뒤죽박죽 되어 무엇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곤란을 당하기도 하였다. 어쨌든 3박4일의 일정이 끝나고 마지막 정리 때까지 알뜰하게 청소했다. 다른 때에 비해 쓰레기의 종류도, 쓰레기의 양도 적은 듯싶었다. 쓰레기는 분리 수거해서 흔적없도록 주위를 깨끗하게 치웠다. 차에 올라 타면서 사랑스럽게 미소 짓는 계곡물과 나무들에게 인사를 했다. 흐뭇하고 무엇인가를 했다는 만족감이 가슴 뚫듯함을 느꼈다.

하나 들썩 우리의 습관들을 고치도록 약속하며 삼푸, 린스 안 쓰기 운동, 풍풍, 세제류 덜 쓰기 운동, 1회용 용기 사용 금지 등 사소한 것들부터 고치도록 하기로 했다. 우리집 식구도 거의 삼푸, 린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세제, 풍풍도 덜 쓰고 있다. 구멍이 나고 있는 오존층!

남의 일처럼 느끼고 있음도 사실이다. 눈에 보여져야만이, 아니 내가 치명적인 사고를 당해야만이 확인할 수 있는 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하루빨리 저마다의 손길에서부터 자연을 살리는 운동에 앞장 서야겠으며 그럴 때만이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뭇잎새의 여린 숨결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김 영 신(도로테아) / 오촌 성당 교리교사

양재 · 한복 · 흙패션
노라노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 (대리안드레아)
동부시장은 · 민정당시영
☎ 86-2715
* 냉난방 완비

고급 신사복
귀빈양복점
가톨릭센터 동편 사거리
전북은행 노송지점 앞
(85-8809, 87-4635)
한 루 가(봉석)
김 테레사(인숙)

제일 정육점
한우 전문점
조 만기(요아킵)
정 순이(안 나)
주공3단지 복합상가 내
☎ 83-0348

신동아화재자동차보험
어양대리점
대표 김 홍 규(안드레아)
자동차,운전자 복지,화재,교육
사무실 : (0653) 52-3045
전북은행 미동지점 앞

잡 관!

“성서교실을 개강하면서”

지난 4월 ‘하느님의 말씀은 새삶의 희망’이라는 주제 아래 시작한 성서교실이 이제 방학을 마치고, 오는 8월 28일(수)부터 2학기 성서교실(신약편)을 다시 시작한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지난 1학기 동안 참 많은 것을 배웠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서공부에 참여할 것인가? 수강생들이 과연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을까? 강의하시는 신부님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염려했던 예상은 빗나갔고, 하느님의 일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도 깨달았다.

성서교실 1,081명, 통신성서 584명, 출석률 87%라는 통계가 말하듯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에 목말라 했는지도 알았다. 그뿐이 아니다. 우리 교구의 오지라고 할 수 있는 무주 본당에서는 신부님께서 직접 60여명의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제 성서가 더 이상 개신교 신자들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구원과 생명의 말씀인 성서만이 인생의 참된 길잡이라는 움직임이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신자라면 누구나 다 성서를 공부해야 한다. 물 몇 방울로 세례를 받았으니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큰일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인의 존재양식(삶의 방식)은 아무래도 하느님의 말씀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서 본문의 의미를 알고 묵상하며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

‘예수의 신비’라는 표제하에 시작되는 2학기 성서교실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한다.

교 구 소 식

※ 축! 전동 성당 100주년 기념화보 발간: 권당 20,000원 문의-전동 성당 84-3222.

1. 축! 견진: 8월31일(토) 오후3시 임실 성당.
2. 성서교실 2학기 개강: **전주지구** 수요일-8월28일 오전10시, 금요일-8월30일 오전10시·오후8시 **이리지구** 8월28일 오전10시·오후8시 **군산지구** 화요일-8월27일 오전10시, 금요일-8월30일 오후8시.
3. 생명 공동체 운동 강좌: 8월26일(월) 오후2시-5시 가톨릭센터3층, 회비-1,000원.
4.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8월30일(금) 밤11시 전동 성당, 강사-박종근 신부.
5. 전화번호 신설: 영등동 성당 보좌신부 52-2274.

※ 축! 명명: 28일(성아우구스티노) 김영일, 한정현, 이동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 **성소모임** 성바로떨수도회(피정): 9월1일 문의-성바로 서원 (0652)252-3398.
 샬레시수녀회: 9월1일 오후2시 연지동 성당 수녀원 (0681)33-2578.
 사랑의 씨튼수녀회: 9월1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3층 소성당 (0652)212-3233.
 천주의 성모한수도회: 8월31일(토) 오후2시 본원 (062)54-0041.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창조 질서 보전-햇빛 차단기 사용

하루 중 가장 더울 때는 창문에 커튼이나 햇빛 가리개(블라인드)를 사용하여 밖으로부터 햇살과 더운 공기의 유입을 억제, 실내 온도의 상승을 막아주어 불필요하게 쓰이는 냉방 전력 소모를 줄입니다.

오순절 평화의 수도회 성소자 모임

- *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들과 함께 부 산 분원: (051)69-2016
 초대교회 정신으로 수도생활을 매월 마지막 주일 오후2시
 하고자 하는 30세 미만, 고졸 서 울 분원: (02)774-8025
 이상의 미혼 남·여 성소자들 779-1447
 기다립니다. 매월 둘째 주일 오후2시
 * 삼랑진 본원: (0527)52-4241 오수영 신부 드림

신부 부케 전문점

진 선 미 꽃 집

이 마리아
 범 디도

☎ 84-2628

요심이(942) 김병오



+ 저희 모친 망자(박루시아)를 위하여 기도와 협조를 주신 주교님과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 용 태 신부 형제 일동

+ 감사합니다.
 저희 부친 김분도(81세) 치사 때 수고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범조·병환(신부), 병모

제주피정(피정및관광)안내

때: 9월13일-15일, 9월23일-25일
 9월28일-30일, 10월4일-6일
 곳: 복지수도회 제주피정의 집
 문의: (02)516-3404, 548-7095

천주교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

제주도에 오셔서 택시를 이용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을 성의껏 모시겠습니다.
 ※ 최소한 15일 전에 연락바람.
 연락처: (064) 55-5151
 (사도회 사무실)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보좌신부 82-9664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 목 성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 송 남

1. 주일미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2. 영세하신 분은 일인 일 단체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3. 성탄반 예비자 모집 : 예비자 인도에 전력을 다합니다. 4. 보좌신부님 휴가 : 26일~31일. 5. 신부님 휴가 기간중 미사안내 : 저녁미사는 없음 26일, 29일, 30일-새벽미사. 27일, 28일-전10시30분 6. 빈첸시오 : 29일 전 시30분. 7. 제대회 : 29일 전10시30분. 8. 장우회 : 만60세이상 남성으로 결성 예정이니 해당되시는 분은 사무실에 접수하세요. 9. 주일금, 교무금 납부에 좀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10. 금주청소 : 인후12. 13번 차주청소 : 인후14. 15. 16번
- ☐ 지난주 봉헌금 : 945,440원 ☐ 교무금 : 974,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 일 균

1. 회장단회 : 오늘 저녁미사 후
 2. 제대회 : 29일 오전 10 : 30분
 3. 병자 봉성체 : 30일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4. 유아세례 : 31일 오후 7시
 5. 사목회 : 9월1일 저녁미사 후
 6. 대건회 : 9월1일 공식미사 후
- * 교무금 미수가 없도록 완납 바랍니다.
성당청소(31일) : 평화의 모후Pr. 능하신 정너Pr.
금주전례 해설-황대금 독서-박상기씨부부 봉헌-윤재원씨가족
차주전례 해설-엄은희 독서-신태섭씨부부 봉헌-정준순씨가족
- ☐ 지난주 봉헌금 : 485,890원 ☐ 교무금 : 1,281,9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 중 석

1. 성모회 : 공식미사 후 2. 꾸리아 :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교무금 납부의날 : 매월첫주(다음주) 4. 반석회 : 오늘 어두리 다리.
 5. 울뜨레아 : 29일저녁(송봉덕 자매님대)
 6. 학사님 시종직수여 : 28일. 광주가톨릭대, 많은 기도바랍니다.
 7. 성가대 월례회 : 30일 저녁
 8. 금주전례 : 해설-여경진 독서①양대환 ②김순이. 봉헌-강문옥, 황옥설씨부부
차주전례 : 해설-유만순 독서①최원규 ②정미순. 봉헌-김성수, 노기석씨부부
 9. 성서읽기 : 고린도 I 1장~8장
 10. 청소봉사 : 성실하신 동정너Pr
- ☐ 지난주 봉헌금 : 268,660원 ☐ 교무금 : 78,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용

- ※ 오늘은 연중 제21주일
1. 회의 : ①꾸리아-오늘오후2시 ②반장회-다음주(9월1일)공식미사 후
③사목회-9월4일(수)오후8시 ④자모회-9월5일(목)12시
 2. 알릴 : ①미사시간변경-8월24일(토), 8월31일(토)오후4시 어린이 미사있고 학생미사없음. 8월25일(일), 9월1일(일)오전9시 학생미사, 오전10시30분공식미사만 있음(9월6일까지) 신부님 영육간 건강을 위하여 신자들의 많은 기도바랍니다.
②꾸리실료수강-여성35차, 박원경(아기안나)자매님(8월22일~8월25일)주님의은혜 충만하기를 빕니다.
- ☐ 지난주 봉헌금 : 567,200원 ☐ 교무금 : 384,000원
☐ 승전축일헌금 : 359,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 환영 ! 금호타운 입주하신 형제 · 자매님 !
1. 사목회, 요셉회, 사라회 : 공식미사 후
 2. 초등부 · 중등부교리교사 모집합니다
 3. 첫영성체 · 영세사진 찾으십시오.
 4. 새 이사자 교적정리 바람
 5. 초등부 교리시작 : 31일(토)미사 후
 6. 청소봉사구역 : 안행동, 효자마을
- ☐ 지난주 봉헌금 : 543,110원 ☐ 교무금 : 449,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강 명 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득 수

- * 성전보수헌금 바람.
1. 축! 꾸리실료수료자 탄생 : 전명숙(빅토리아), 박경자(아녜스), 이혜남(벨라다)
 2. 오늘은 교무금 납부주일입니다. 3. 성마리아꾸리아 : 오늘오후2시. 4. 축! 독서직 : 소병윤(아우구스티노), 최원석(시몬)학사님. 8월28일(수)-10시30분. 광주신학교. 5. 성가정회 : 다음주 오전11시. 6. 울뜨레아 : 다음주 공식미사후(환영식 포함) 연기 : 9월1일. 7. 구역봉사자모임 : 다음주 저녁7시30분. 8. 영성체 해서는 안될분 : ①관공사경 1년동안 고백성사 한번도 안 받으신분 ②주일마다 늦게 오시는분(그미사에 한해서) ③교무금을 전혀 안 내시는분 ☐ 지난주 봉헌금 : 1,535,27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 광 탁

1. 성령 세미나 : 9월2일~7일. 매일 후8시. 전전자는 의무.
 2. 견진성사 신청마감 : 오늘 저녁미사 까지. 견진미사-9월15일
 3. 초등부 주일학교 개학 : 31일 후2시30분. 미사는 후3시30분.
 4. 중 · 고생 견진교리 : 31일-후6시. 1일-전10시. 회비-3,000원
 5. 꾸리실료수료자 탄생 : 양순자(마리아), 축하드립니다.
 6. 울뜨레아및 새 꾸리실료수료자 환영식 : 오늘 후7시, 모두참석.
 7. L.M 창조주의 어머니Pr 옥외행사 : 29일 전11시, 대추나무집.
 8. M.E 환영식 : 26일 후7시. * M.E 가족은 모두참여바람
 9. 승영진 학사님 시종직 수여 : 28일 전9시30분 본당버스 출발.
 10. 회의 : 꾸리아-오늘 후2시30분, 성가대-어머니미사 후
- ☐ 지난주 봉헌금 : 660,530원 ☐ 교무금 : 415,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 영 근

1. 사목회 · 청년회 : 주일미사 후
2. 반모임 : 27일 오전10시30분-성원클럽. 오후8시30분-삼정1. 3등. 28일 오전10시30분-동신APT.
3. 사목회 : 다음주일 미사 후
4. 본당에 이사 오시거나 타 본당으로 이사가신 가정은 교적을 정리해 주십시오.
5. 주일미사에 참여하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 평화를 얻으십시오.
6. 청소봉사 : 겸손하신자의 모후Pr
7. 금주전례 : 최정순 독서 · 봉헌 : 송덕순 · 송훈식
차주전례 : 김용무 독서 · 봉헌 : 이현희 · 한병강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 종 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 수 현
사목회장 황 수 석

- ※ 오늘 본당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1. 순교자반 예비자집중교리 : 9월3, 4, 5, 6일(화~금)장소 : 교육관 후5시. 피경 : 9월1일(09 : 00~후5시 교육관) 영세식 : 9월8일(일)후4시 미사중에. 2. 종교생활"효자의밤" 성화리에 맞춰(16·금) 참가한 학생들 수고에 감사. 3. 모임안내 : ①사회복지분과위원회 : 오늘10시 ②꾸리아 : 수10시 ③전례해설단모임 : 화요일 후8 : 30 4. 새로 이사오신 교우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주소, 전화번호 사무실에) 5. 축! 결혼 9월1일(일) 후13시, 신랑 장방환, 신부 최복덕(가타리나) 6. 축하합니다! 꾸리실료 수료자-허선영(세시리아) 7. 매월 마지막주는 교무금 월납주간입니다.
- ☐ 지난주 봉헌금 : 1,136,410원 ☐ 교무금 : 1,203,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창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 홍 두

1. 나눔의 주일입니다 2. 반석회, 요셉회 : 공식미사 후
 3. 반기도준비모임 : 30(금)10시미사후 4. 유아세례 : 31(토)오후2시
 5. 레지오단원교육 : 26(월)저녁7 : 40분 6. 돌담회 : 매주화요일 저녁7시
 7. 통일원림미사 : 익명100,000원, 익명50,000원 감사합니다.
차주모임 : 꾸리아, 사목회
신축헌금봉헌금 : 170,000원
금주전례해설 : 박명태 독서①김진호 ②임혜경 기도 이종진. 신윤희
차주전례해설 : 임창수 독서①문병식 ②김경숙 기도 정원희. 이민희
- ☐ 지난주 봉헌금 : 904,430원 ☐ 교무금 : 938,000원